

# “전남에 상급 종합병원 반드시 건립”

전남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 <3> 정의당 심상정

본지는 내년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 토론회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연당 안철수 후보 순으로 게재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전남에 상급병원이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남도에 상급종합병원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과대학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

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 초청 토론회에서 “전국 섬의 65%가 전남에 포함돼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150개 이상의 섬에 의사 한명이 없으며, 전남에 노령인구가 제일 많아 연간 80만명 이상이 다른 지자체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과격적으로 제시하면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이제 군공항 문제는 평화협정의 전방 속에서 군 공항 전제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공항을 이전 하게 되면 군의 이

“군 공항 전제로 구조조정해야”  
“지방정부 재정분권 헌법명시”  
지역언론 균형발전 필수요소

차륙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의 이용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합부로 편수도 늘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통제가 있어 문제는 군 공항 전체를 두고 평화 협정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개헌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것을 적시하고 지방정부 재정권도 신설하는 방안 등 5가지를 헌법에 포함해 지방분권 국가를 뒷받침 하는 조항으로 명시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내용이 기초가 돼 개헌 이전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에 관한 법을 통해 최대한 실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심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 실망을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때 국민들께서 10% 가까운 지지를 주셨는데 총선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당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어려운 상태. 그것도 전적으로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사주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지역권 신문을 지원해 지역 언론이 지방 권력과 수도권 기득권을 제대로 감시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GGM 근로자 임금인상 기준안 의결

시, 2022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임금인상 기준 제시안을 의결했다. 이용섭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종태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이사,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한국 전남 지방노동위원장 등 각 분야 노사민정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전국 제1호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캐스퍼를 성공적으로 양산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과 광주상생형일자리재단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안을 공유했다.

임금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제시기로 의결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주거지원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정책연구 및 노사갈등 예방사업을 추진할 광주상생형일자리재단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용섭 시장은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린 안타까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대책에 정부와 함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사민정도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노사상생 기반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시, 설 대비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총력

관련 시설 소독·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광주시는 설을 맞아 귀성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메추리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 24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20건이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에서

1,997건 발생했으며,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보건환경연구원, 5개 자치구와 연계해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의심 신고 접수, 전화예찰 등 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자치구·축협 공동방재단 소속차량 총 7대를 동원해 설 명절 전후(1월 28일, 2월 3일)에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일제소독하고

의심가축 조기 검사를 위한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성객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출입 삼가 ▲성묘 직후 사육시설 출입금지 ▲축산 내외부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사항을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특히 축산농가 방문차량과 철새도래지 방문한 귀성 차량의 소독을 위해 광산구 삼도동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 연휴와 상관 없이 운영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전남지역 지난해 수출액 427억 달러

전년보다 58% 증가... 사상 최고치 경신

전남도의 2021년 한 해 도내 수출액이 4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2년 419억 달러 달성 이후,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271억 달러)보다 57.6%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2년 419억 달러, 2016년

278억 달러, 2018년 366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남의 최대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이 169억 달러로 전년보다 53.2% 증가한 것을 비롯해 석유제품이 113억 달러, 철강 제품이 79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59.5%, 124.9% 늘었다. 그 외 화물선, 비료 등 수출제품이 전체적으로

로 증가했다.

특히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전년(4억6천만 달러)보다 21.2% 증가한 5억6,000만 달러로 매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2억5,000만 달러, 2016년 3억2,000만 달러, 2017년 3억5,000만 달러, 2018년 3억9,000만 달러, 2019년 4억5,000만 달러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2억300만 달러, 전복 4,300만 달러, 분유 3,800만 달러, 유자차 2,000만 달러 등으로 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김용현 기자

###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

## 하주아 남구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하주아 의원(사진), 부위원장에 남호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남구의회 윤리특위는 김광수, 박용화, 오영순, 조기주 의원 등이 선임돼 총 6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제8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하주아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보다 중요해졌다”며 “자율성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령성과 도덕성을 갖춘 구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찬기 기자